



◇국내 최대 기도성지 깃바위는 하루 24시간 불자들의 기도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깃바위 부처님은 마음에서 비롯된 모든 고통과 소망을 수행을 통해 이루어도록 일깨워주고 있다.

팔공산 깃바위부처님

'일체유심조' 처방문 내려 무명중생 길 열어 주시네



우리나라 최대 기도성지의 하나인 팔공산 깃바위(선본사) 새벽3시, 약사여래정군이 골짜기를 깨우고 있다. 일년내내 촛불이 켜져 무명을 밝히는 곳. 특히 매일 음력 그믐부터 초삼일 까지, 또 요즘처럼 대학입시철이면 하루 24시간 불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아 뒤에 오는 사람에게 며칠러서 오르게 된다는 이곳.

깃바위부처님은 오르내리는 사람들의 수만명이나 술한 사연을 간직한 팔공산 관봉 정상(850m)에 늘름히 정좌해 있다.

부산에서 큰밭과 함께 왔다는 한 노보살은 "아들들과 딸 둘을 다 치성시키고 내 갈길을 준비하기 위해 온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시절 엄마손을 잡고 오기 시작했다는 이승호(대구시 동구, 38세)는 '참회기도집 운동삼아' 온다고 했다. 특별한 영험을 바라고 오지는 않는다는게 이거사의 부연.

무엇이 전국 불자들의 발길을 이곳으로 끌어들이고 있을까?

깃바위 부처님(경북 경산시 외촌면 대현리 보물431호)의 학술상 명칭은 '관봉(冠峯)석조여래좌상'이다. 머리위에 관석(板石)이 올려져 있어 깃바위부처로 더 잘 알려져있다. 깃바위는 관봉과 의미가 같다.

지름 1m80cm, 두께 15cm밖에 안되는 특이한 것으로 인해 관봉여래는 다른 불상과 차별화를 이루며 독특한 존재가 되었다. 그 것은 배위 병풍석과 함께 풍우를 막기 위한것으로 보살의 보관(寶冠)과는 무관하다.

깃바위는638년(선덕여왕 7년)에 원광법사의 수제자인 의현스님이 속가 모친의 명복을 빌기위해 조성했다고 한다.전체높이가 4m에 달하는 이 불상의 왼손은 결가부좌한 왼쪽발 부근에서 손바닥을 위로 향해 올려져 있는데 악합을 올려놓은 흔적이 있어 약사여래로 불리워져 왔다.

깃바위의 분위기는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 율배바지와 운동화는 등산복과 등산화 차림으로 바뀌었고 젊은 불자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 또한 남자들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부부가 함께 오는 등 커플도 많아졌다.

이곳을 20년 넘게 다녔다는 서진수(61세) 부부는 "깃바위 부처님은 시주금의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음뿐 아니라 마음속으로 대화를 나누고 같수 있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부처님이시다"며

**백일기도후 암완치
서울대 수석합격등
각양각색 영험담
'세상속으로'
그러나
끓는 마음에서 비롯
깃바위부처님 가피
결국 '일체유심조'**

"물이 함께 다니고부터 가정이 화목하고 자식이 바로 자라는 것을 확연히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깃바위에 얽힌 영험담은 이곳을 찾는 사람들 수만명이나 술하게 많다. 지난96년 막노동일을 하며 3전4기 끝에 서울대 법대를 지만, 인문계 전체 수석을 일궈낸 장승수씨도 깃바위부처님의 가피를 입은 대표적인 예. 장씨의 수석뒤에는 어머니 이계생보살(54세)의 지극한 불심이 있었다. 파출부, 식당일을 했던 이보살은 집이 있는 반야월에서 깃바위까지 3~4시간 걸어서 새벽에 불에 참석하고 나서야 돌아와 아침식사를 준비했고, 그 정성을 먹은 아들은 수석합격으로 보답했다. 아들이 입사에 거듭 실패하고 막노동판에 나가야 했을때도 거르지 않고 관봉을 올랐다.

대장암 합병증으로 3개월 사형선고를 받은 한 40대 보살은 1백일 기도후 병이 완치되었으며, 여전히 깃바위부처님앞에서 절을 하고 있다. 엄밀히 말해 약사여래는 처방이 전문이었지만 이곳을 찾는 이들의 소원은 각양각색이다. 건강에서부터 대입합격 승진 특남 결혼 사업번창에 이르기 까지...모든 고(苦)는 마음에서 비롯되었으니 '일체유심조' 라는 처방문으로 만병을 치유하는지도 모를일이다.

소원성취 중심의 기도에 대해 정업스님(선본사 교무국장)은 "기복이 신행의 출발점은 될 수 있으나 이것이 전부여서는 안되며 수행중심의 기도로 바뀌어 가야할 것"이라면서 "바른 기도문화가 정립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가고있다"고 말했다.

깃바위는 연중 정월과 입시철에, 날짜별로는 그믐부터 초이레까지가 가장 많이 불린다. 관일에는 4분정권을 하며 매주 토요일은 철야 기도를 마련해 놓고 있어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다. 이곳을 참배하는 사람들은 아래 요사채에서 공양을 할 수 있다. 오전6시부터 오후6시까지(주말은 오후9시까지, 그로부터 7일간은 새벽1시까지) 제공한다. 이렇게 해서 소비되는 쌀은 월 평균 1백기가 정도. 시주들어오는 공양미는 월 평균 5백기가 수준. 남은 공양미는 무료급식소 사회복지관 등에 전달된다.

팔공산을 끼고 사는 대구 영천 경산 등 지역사람들에게 깃바위는 곧 마음속 부처님 형상으로 길게 자리잡고 있다.

글=이은호 사진=고영배 기자

◇전국 기도도량

도량	사찰	소재지	전화
적멸보궁	통도사	경남 양산	(052)382-7182
	선원사	경남 경창	(0374)32-6666
	법흥사	경남 안동	(0365)462-6969
	정안사	경남 영월	(0373)73-8177
	도리사	경남 장성	(0398)591-2469
관음기도	보문사	경기 강화	(0349)32-3070
	보리암	경남 남해	(0554)62-6115
	홍련암	경남 양양	(0396)672-2478
	오세암	경남 안동	(0365)462-2576
	한양암	전남 여천	(0662)63-4742
지장기도	심원사	경남 창원	(0353)65-3468
	도솔암	전북 고령	(0677)64-2861
	영월암	경기 이천	(0336)635-3457
	송광사	전북 완주	(0652)251-8881
	개심사	충남 서산	(0455)888-2256
니한기도	경복궁	경북 영천	(0563)35-1369
	사리암	경북 청도	(0542)72-8811
	진불암	경북 영천	(0563)37-0730
	연수암	경기 과천	(02)502-3234
	화엄암	경남 합천	(0569)32-7301
의사불수미륵	깃바위	경북 경산	(053)954-0456
	장곡사	충남 청양	(0454)42-6769
	호암사	경기 사옹	(02)803-4779
	관음사	경남 양남	(0559)36-1740
	문수사	서울구기동	(02)352-2062
세계사	충북 충주	(0441)846-3997	

기도의 의미

자성불 향한 깨달음 방편...기복 앞서면 업식 확대

불자들의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수행행위의 하나가 기도이다. 불교입문의 필수코스 이다 시피한 기도란 과연 무엇일까? 기복일까? 수행일까? 기복기도는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다 보니 업식을 확대시키는데 비해 수행기도는 업식을 바꾸어 깨달음으로 나아간다. 기복기도는 조건부 수행에 불과하여 업적이라는 변할 개연성이 내재해있다. 즉 원하는 바가 성취되면 더 큰 욕망을 추구하게 되어 영원히 만족이란 없는 것. 진정한 기도란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열불 간경 참선 모두가 기도라 할수있다. 중생

들의 근기에 따라 그 방편을 달리할 뿐인 것이다. 기도에는 흔히 절이 수반된다. 자신을 낮추고 불보살을 우러러 가피를 입고자 하기 때문이다. 절은 대상을 향한 때 뜻어른에게는 1배, 즉은 영가에게는 2배, 스승 혹은 삼보(三寶)에 대해서는 3배, 국왕에게는 4배, 보살에게는 5배, 옛날 중국의 천자에게는 9배를 했으므로 대상을 향한 절은 9배가 그한계라고 볼 수 있다. 그 이상의 절은 대상이 아닌 자신을 향하게 된다. 참회33회에 대한 53배, 108번뇌를 녹이기 위한 108

배, 5백나한에 대한 5백배, 헌경의 1천 부처님에 대한 1천배, 과거 현재 미래의 3대계에 출현하는 3천부처님에 대한 3천배등 다양한 기도가 있으나 궁극적으로 누구에게나 내재한 자성불(自性佛)을 향하고 있다. 기도의 궁극은 깨달음을 향해 있다는 것이다. 오론은 내손가락 엄두마타를 연비하는 신고(辛苦)의 기도를 했고 기도에 관해 가장 많은 저서를 펴낸 일타스님(해인사 지족암 조실)은 "기도를 제대로 하면 참된 마음 자리에서 묘한 힘이 흘러나와 기도를 이루게 하는것일뿐 다른 특별한 존재가 있어 감응하

는 것이 아니다"고 단언한다. 기도를 일심으로 하게되면 참된 마음 자리로 부터의 3종가피가 나타난다. 현실에서 바로 가피를 입어 소원을 성취하는 현종가피(顯宗加被), 꿈을 통해 소원이 이뤄질 것을 예시하는 몽중가피(夢中加被), 재나 은근하게 보호를 받는 명중가피(冥中加被)가 바로 그것. 기도는 또 잠들기 직전이나 임종 직전에 해야 효과가 크다고 한다. 임종의 순간 어떤 마음을 품고 죽느냐에 따라 내생이 결정되고 잠들기전의 마음은 잠제 의식에 청사리 도달하기 때문이다. 기도하는 마음이 집으로 부모 형제 자식 이웃을 대한다면 생활자제가 곧 기도가 될 수 있다.